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상관관계*

강 창 우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 들어가는 말

발화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특정 의미내용과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¹⁾ 이 단어들의 의미내용으로부터 합성성의 원리(Kompositionalitätsprinzip)에 의하여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²⁾ 그렇지만 실제 의사소통은 항상 이와 같이 관습성과 합성성에 바탕을 문장의미(Satzbedeutung)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는 이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이것을 F. de Saussure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2) Frege(1986)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진 언어표현의 의미는 각 어휘의 의미와 그 어휘들이 통사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 제 어: 언어표현, 발화의도, 관습화, 추론, 의사소통모델
sprachlicher Ausdruck, Äußerungsabsicht, Konventionalisierung,
Schlussfolgerung, Kommunikationsmodell

(1)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 (나에게 소금을 건네줄 수 있니?)

이 발화의 문장의미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가 소금을 건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이 발화로 소금을 건네 달라는 ‘요청’이 수행된다. 따라서 관습성과 함성성에 근거해서 문장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발화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인지적 작용을 통해 비로소 발화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관습성과 함성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예를 든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유형화하고,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가 이해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Austin(1962)과 Searle(1969)에 의해 개발된 화행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화행이 명제내용을 표시하는 부분(expressions for propositions)과 발화수반력 지시체(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s)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Searle 1969: 31), 동일한 명제내용을 갖는 발화라도 다른 발화수반력, 즉 발화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Searle 1969: 22ff.). 또한 화행론에서는 (1)과 같이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 수행된 발화수반력이 일치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간접화행에 대한 이론을 통해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³⁾ 이밖에 Hindelang(1978), Zillig(1982), Rolf(1983), Graffe(1990), Marten-Cleef(1991), Kang(1996) 등의 연구에서는 화행의 대유형을 하위분류하는 과정에서 화행유형과 발화형태의 관계를 체계적

3) Searle (1979: 30ff.) 참조. 간접화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이성은(2003)과 강창우(2006) 참조.

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법은 Grice(1979)를 비롯한 언어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대화함축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대화격률(maxims of conversation)에 근거하여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추론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Sperber/Wilson(1995)은 대화함축이론의 ‘관련성의 격률’을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최상위 원칙으로 보는 적절성이론(Relevance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도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를 추론과정으로 설명한다.

한편 은유적 표현(Metapher)도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관습적, 합성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은유는 오랫동안 수사학과 문예학의 연구대상이었고, Searle(1979: 76ff.)은 언어철학적인 맥락에서도 은유를 다루었지만, 언어학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유에 대한 연구는 역사언어학, 인지문법 등의 다양한 언어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은유를 의미론적 현상이 아니라 화용론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했다.⁴⁾ 이밖에도 환유(Metonymie), 반어법(Ironie), 풍자(Satire), 비꼼(Sarkasmus)과 같은 수사적 기법과 다양한 성구적 표현(Phraseologismus)들도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관습적, 합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언어현상들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방법들은 한편으로는 각각 특유의 작용 기제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인지적 처리과정의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화용론적 현상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설명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용(1996), Indurkha (1992), Fiumara (1995), Kittay (1989), Radman (1997) 등 참조.

3. 언어표현, 축어적 의미, 발화의미, 발화의도의 관계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간의 관계를 유형화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관계를 형식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Searle (1979: 76ff.)은 단어의미(word meaning)/문장의미(sentence meaning)와 발화의미(utterance meaning)를 구분하였다. 단어의미/문장의미는 언어표현과 의미 내용 사이의 관습적 관계와 합성성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발화의미는 문장의미에 직시적 표현에 대한 해석과 같은 문맥적 요소가 추가되어 나온다. Bierwisch(1980)는 이 두 가지 분류에 의사소통적 의미(kommunikativer Sinn)를 추가한 삼원적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Bußmann(2002: 52)은 발화수반적 기능(illokutive Funktion)을 추가하고, 발화의 의사소통적 의미는 발화의미와 발화수반적 기능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한편 강창우(2003)는 축어적 의미(wörtliche Bedeutung), 발화의미, 발화의도(Äußerungsabsicht)의 삼원적 분류를 제안하였다.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표현층위, 축어적 의미의 층위, 발화의미의 층위, 그리고 발화의도의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언어표현은 발화의 형태적 측면을 말하며, 축어적 의미는 단어의미 혹은 문장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화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합성성의 원리에 의하여 파악된다. 발화의미는 축어적 의미에 직시적 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해석과 발화수반력 지시체에 대한 해석이 추가되어 나온다.⁵⁾ 따라서 언어표현과 발화의미의 관계는 언어관습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화의도는 발화의미의 바탕 위에서 상황과 문맥에 대한 지식과 필요한 경우 추론을 통하여 이해된다. 이 발화의도가 궁극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이며, Bierwisch(1980)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5)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그것이 지시하는 발화수반력의 관계는 언어관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간접화행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유진(2006) 참조.

의미나 Bußmann(2002)이 말하는 발화수반적 기능에 대응된다. 다만 발화의도는 발화수반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예문 (1)에서 발화의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소금을 건네 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이다.

한편 Searle(1969: 31)은 화행이 명제내용(propositional content)과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F(p)$ 로 형식화하였으며, Searle/Vanderveken(1985: 2ff.)은 화행의 발화형태 층위를 $f(p)$ 로, 발화수반력의 층위를 $F(P)$ 로 형식화하였다.⁶⁾ 이를 바탕으로 강창우(2003, 2006)는 언어표현과 발화도 사이의 관계를 형식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구분한 네 가지 층위를 형식화하여 구분하기 위하여 이 형식화 방법을 수정·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각 형식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기가 자니까 조용히 말하라는 ‘부탁’을 하기위해 말한 “Maria schläft(마리아가 잠자고 있다)”라는 발화를 이용하여 제시하겠다.

- 언어표현: $f_i(p)$
예: aussagesatz(Maria schläft)
- 축어적 의미: $f_i(P)$
예: aussagesatz(S(m)) 혹은 aussagesatz(MARIA SCHLÄFT)⁷⁾
- 발화 의미: $F_i(P)$
예: FESTSTELLEN(MARIA SCHLÄFT)
- 발화 의도: $F_j(Q)$
예: BITTEN(DU SOLLST LEISER SPRECHEN)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화의도는 언어표현으로부터 직접 이해되는 것

6) 여기서 ‘ f ’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이고, ‘ p ’는 명제내용 지시체이며, ‘ F ’는 발화수반력, ‘ P ’는 명제내용을 나타낸다.

7) 축어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이론에 따라 다르게 형식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또 기술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형식을 사용하겠다.

이 아니라 축어적 의미와 발화의미의 해석과정과 같은 일련의 언어적·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쳐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일한 유형의 언어표현을 통해 동일한 유형의 발화의도가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것의 이해과정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제시되는 [유형 2]부터 [유형 6]의 하위유형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언어현상과 유형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를 3장에서 제시한 형식화를 이용하여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f_1(p) \rightarrow F_1(P)$

이 유형에서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명제내용 지시체가 관습적으로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명제내용이 실제 발화수반력 및 명제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이며, 다음 예와 같이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관습성에 바탕을 둔 경우이다.⁸⁾

(2) Peter liebt Maria. (페터는 마리아를 사랑한다.)

aussagesatz(Peter liebt Maria)

→ BEHAUPTEN(PETER LIEBT MARIA)

이 발화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페터가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이 발화의 발화수반력은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며 명제내용도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것과 같다.⁹⁾

8) 이 논문은 3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층위 가운데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축어적 의미와 발화의미의 형식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하겠다.

[유형 2] $f_1(p) \rightarrow F_2(P)$

이 유형에서는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은 일치하지만,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로 수행된 발화수반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3) a.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 (나에게 소금을 건네줄 수 있니?)

fragesatz(du kannst mir das Salz reichen)

→ BITTEN(DU REICHST MIR DAS SALZ)

b. Machst du das Fenster auf? (창문을 열어주겠니?)

fragesatz(du machst das Fenster auf)

→ BITTEN(DU MACHST DAS FENSTER AUF)

이 발화는 ‘질문’의 형식으로 실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부탁’이 수행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 발화의 발화수반력은 ‘부탁’으로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질문’과 다르지만, 명제내용은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Searle(1979: 34f.)이 제시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추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3a)와 같은 형식의 언어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 추론과정도 관습화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3a') fragesatz/können(du kannst mir das Salz reichen)

→ BITTEN(DU REICHST MIR DAS SALZ)

여기서 화법조동사 können이 문장서법과 더불어 발화수반력 지시체로 이해된다는 것은 이 두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사용된 발화가 관습화 과정을 통해 추

9) 이 발화를 통해 페터를 좋아하는 청자에게 페터를 포기하라는 ‘충고’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Searle(1979)이 말하는 의미의 간접화행이 수행된 경우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유형 4]에 해당한다.

론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부탁’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발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관습화된 발화수반력 지시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발화의미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추론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유형에서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와 관습화되어 있어서 추론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형식화할 수 있다.

[유형 2-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P)$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

[유형 2-2] $f_1(p) \rightarrow F_2(P) \rightarrow F_2(P)$ [관습화가 이루어진 경우]

[유형 3] $f_1(p) \rightarrow F_1(Q)$

이 유형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은 실제 수행된 발화수반력과 일치하지만,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a. Peter ist ein Gorilla. (페터는 고릴라다.)

aussagesatz(Peter ist ein Gorilla)

→ BEHAUPTEN(PETER IST JÄHZORNIG UND GEWALTTÄTIG)

b. Hast du eine Uhr? (시계 있니?)

fragesatz(du hast eine Uhr)

→ FRAGEN(ES IST X UHR JETZT)

(4a)는 페터가 성깔이 있으며 폭력적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로 수행된 발화수반력은 서로 다르지 않지만,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로 수행된 명제내용은 다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예는 (4b)인데, 이 둘의 차이는 (4a)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명제내용 지시체와 명제내용

10) 여기에 대해서는 강창우(2006: 243ff.), 서유진(2006: 63), 이성은(2003: 9) 참조.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관습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4b)의 경우에는 거의 시간을 묻는 표현으로 관습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될 수 있다.

[유형 3-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1(Q)$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

[유형 3-2] $f_1(p) \rightarrow F_1(Q) \rightarrow F_1(Q)$ [관습화가 이루어진 경우]

[유형 4] $f_1(p) \rightarrow F_2(Q)$

이 유형은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명제내용이 모두 실제로 수행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5) a. Rauchen gefährdet der Gesundheit.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

aussagesatz(Rauchen gefährdet der Gesundheit)

→ RATEN(DU SOLLST AUFHÖREN ZU RAUCHEN)

b. Weißt du, wie spät es ist? (몇 시인지 아니?)

fragesatz(du weißt, wie spät es ist)

→ VORWERFEN(DU HAST DICH VERSPÄTET)

(5a)와 같은 유형의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5b)의 경우에는 ‘비난’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언어표현으로 어느 정도 관습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발화를 들으면 복잡한 추론과정 없이 직접 ‘비난’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유형도 추론과정이 개입되는 경우와 관습화되어 있어서 추론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4-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Q)$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

[[유형 4-2] $f_1(p) \rightarrow F_2(Q) \rightarrow F_2(Q)$ [관습화가 이루어진 경우]

[유형 5] $f_1(p) \rightarrow F_1(\neg P)$

이 유형은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로 수행된 발화수반력은 동일하지만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6) a. Es ist heiß hier drin. (여기 안은 덥구먼.)

aussagesatz(es ist heiß hier drin)

→ FESTSTELLEN (ES IST KALT HIER DRIN)

b. Das Wetter heute ist wunderschön. (오늘 날씨 정말 좋네.)

aussagesatz(das Wetter heute ist wunderschön)

→ FESTSTELLEN(DAS WETTER HEUTE IST SEHR SCHLECHT)

이 발화에서는 반어법이 사용된 경우들인데, (6a)의 경우 위의 예에서 분석한 것처럼 반어적으로 ‘확인’화행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난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유형 4]의 이해과정을 거치게 된다.¹¹⁾ 이 유형도 언어표현과 발화의미의 관습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5-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1(\neg P)$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

[유형 5-2] $f_1(p) \rightarrow F_1(\neg P) \rightarrow F_1(\neg P)$ [관습화가 이루어진 경우]

[유형 6] $f_1(p) \rightarrow F_2(\neg P)$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 발화수반력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은 모순관계에 있다.

11) 이 경우에 반어적 표현이 관습화되지 않았다면 a), 관습화되었다면 b)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a) $f_1(p) \rightarrow F_1(\neg P) \rightarrow F_2(Q)$ b)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1(\neg P) \rightarrow F_2(Q)$ 이 두 유형은 [유형 4]의 하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

- (7) a. Ist das Wetter heute nicht schön? (오늘 날씨 좋지 않니?)
 fragesatz(das Wetter heute ist nicht schön)
 → BEHAUPTEN(DAS WETTER HEUTE IST SCHÖN)
- b. Du bist ja wieder superpünktlich! (너 또 시간 잘 맞춰오는구나!)
 ausrufesatz(du bist ja wieder superpünktlich)
 → VORWERFEN(DU HAST DICH WIEDER VERSPÄTET)

이 유형에는 (7a)와 같은 수사의문문과 (7b)와 같은 반어법이 속한다. 수사의 문문과 반어법에 대한 이해는 상황과 문맥, 그리고 대화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반어법의 경우 강세와 억양, 불변화사와 같은 언어적인 표지뿐만 아니라 몸짓과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수단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관습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¹²⁾ 이 유형도 관습화 여부에 따라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음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유형 6-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neg P)$ [추론이 개입되는 경우]
 [유형 6-2] $f_1(p) \rightarrow F_2(\neg P) \rightarrow F_2(\neg P)$ [관습화가 이루어진 경우]

이 장에서는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여기에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유형들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유형들은 열린 집합으로 언어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기존의 유형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유형 2], [유형 4], [유형 6]에서도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 수행된 발화수반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문문이라는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사용된 발화로 모든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유형의 화행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형 2], [유형 4], [유형 6]에서 발화수반

12) 반어법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표지들에 대해서는 Bußmann(2002: 320) 참조.

력 지시체와 발화수반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형 3]과 [유형 4]에서 명제내용 지시체와 명제내용 사이에도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앞으로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발화의도 이해의 메커니즘

5.1.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관습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언어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습성과 단어의 의미로부터 문장의 의미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합성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화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추론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Kannst du mir bitte das Fenster aufmachen?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이 발화는 [유형 2]에 속하는 것으로 발화수반력 지시체는 이 발화를 ‘질문’으로 해석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 화자가 이 발화를 수행한 의도는 창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이 발화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Searle(1979)은 간접화행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이 발화를 먼저 ‘질문’으로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이 발화를 들으면 바로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Sökeland (1980)는 (8)과 같은 경우 이 발화를 ‘질문’으로 이해할 것을 지시하는 의문문이라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요청’으로 이해할 것을 지시하는 불변화사 *bitte*라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의 경쟁을 통해 ‘요청’이라는 발화의도가 이해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유진(2006: 63)은 여기서 ‘Kannst du?’를 ‘요청’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발화수반력 지시체로 보았으며, 이성은(2003: 72)은 이것을 ‘요청’을 나타내는 관습화된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습화 과정은 (8)에서와 같이

발화의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자.

(9) Ich habe Hunger. (배고파.)

이것은 발화 전체가 밥을 달라는 ‘요구’를 나타내는 언어표현으로 관습화되었다. 즉 이 발화가 밥을 달라는 ‘요구’로 관습화되기 전에는 추론을 통해 발화의도가 이해되었겠지만,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점차 관습화되었고, 현재는 밥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관습화된 표현의 한 가지가 된 것이다.¹³⁾

이런 관습화 과정은 추론을 통해 발화의도가 이해되는 모든 유형의 언어표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추론을 통해 발화의도가 이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더욱 관습화되어 추론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관습화 때문에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어표현의 사용으로 추론과정을 거쳐 발화의도가 이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어떤 언어표현이 특정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습화되거나 어떤 언어표현의 부분이 특정 발화의도에 대한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그 언어공동체가 공유하는 코드(Code)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습화된 언어표현이나 발화수반력 지시체는 발화의미로부터 발화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발화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13) 속어적 표현(idiomatische Wendungen), 관용구(Redewendungen), 그리고 관습화된 은유법(konventionalisierte Metapher) 등도 이와 같은 관습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Die Wände haben Ohren(벽에도 귀가 있다)”과 같은 관용구의 발화의도는 이미 관습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추론이 필요 없게 되었다.

5.2. 추론을 통한 발화의도의 이해

언어관습에 따라 언어표현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대화상황에 적절한 발화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 청자는 발화의도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때 청자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 Searle(1979: 34f.)이 간접화행을 이해하는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협동의 원칙, 화행론, 배경지식이며, Grice(1979)가 제시한 것은 대화격률이다. 그러나 실제 추론과정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지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 (10) a. Mir ist gerade die Benzin ausgegangen. (방금 휘발유가 떨어졌는데요.)
b. Die Suppe ist lauwarm. (스프가 미지근하네.)
c. Dort ist die Tür. (문은 저쪽입니다.)
d. Das Eis ist dünn. (얼음이 얇다.)
- (11) a. Politik ist Politik. (정치는 정치야.)
b. Hans hat aufgehört zu rauchen. (한스는 담배를 끊었다.)
c. Ist es nicht zu warm hier? (여기 너무 덥지 않니?)
d. Körperlich ist er schon ein Erwachsener.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어른이야.)
- (12) A: Hans ist ein großartiger Fußballspieler. (한스는 대단한 축구선수야.)
B: Ja genau, und Beckenbauer ist der mieseste, den ich kenne.
(아, 그럼, 베크엔바우어는 내가 아는 가장 형편없는 축구선수고.)
- (13) A: Frau Schmidt gefällt mir gar nicht.
(슈미트 부인은 내 맘에 전혀 안 들어.)
B: Das Wetter ist wunderschön. (날씨 참 좋다.)

(10a)의 발화를 주유소가 있는 곳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지식이 큰 역할을 하지만, (10b)의 발화를 스프가 식었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스프를 좋아하는 청자의 식성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10c)의 발화를 나가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10d)의 발화를 사실을 알려 주는 정보행위로 이해할 것인지, 얼음이 얇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얼음이 얇아서 쉽게 깰 수 있으니 물을 떠오라는 ‘요구’로 이해할 것인가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11a)의 발화를 정치에 대한 불평으로, (11b)의 발화를 담배를 끊으라는 ‘충고’로, (11c)의 발화를 창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으로, 그리고 (11d)의 발화를 “Geistlich ist er noch ein Kind(그는 정신적으로는 아직 아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수사학적 표현형식에 대한 지식이 활용된다.

또한 (12)에서 B의 발화를 A의 발화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식 및 수사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문맥에 대한 지식이 큰 역할을 한다. (13)에서 B의 발화를 슈미트 부인이 뒤에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함축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대화상황과 문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언어표현에서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전제에 대한 지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4) Hans fährt mit seiner Freundin in Urlaub.
(한스는 여자친구와 휴가를 떠난다.)

이 발화를 통해 한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이 발화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발화로 한스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으니 그를 잊으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에도 전제에 대한 지식이 전제된다.

이밖에 은유법에 대한 지식도 추론과정에서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5) Es wird heiß hier drin. (여기 안은 뜨거워진다.)

(15)의 발화로 말다툼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경우, 이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나 사태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근거로 은유적으로 발화의도를 표현하는 언어 사용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¹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론과정에는 협동의 원칙, 화행의 성공조건, 대화 격률에 대한 지식과 배경지식 이외에도 수사학적 표현형식, 문맥, 그리고 은유법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은 화용론적·언어적 지식과 대화 상대방에 대한 지식, 대화상황에 대한 지식, 개인적인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 등 비언어적 지식이 사용된다. 그리고 4장에서 제시한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 유형에 대한 지식도 추론의 방향을 제한하고 조종하는 기능을 가지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5.3. 발화의도 이해의 모델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관습적으로 정해진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에 기반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에서 파란불은 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불은 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창문 좀 닫아주세요”라는 말은 창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나타내고,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라는 말은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에 관습성(Konventionalität)이 존재한다. 그러나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에서는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관습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추론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데,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의 경

14) 이 발화는 상황에 따라 실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확인’일 수도 있고(이 경우에는 [유형 1]에 속한다), 창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으며(이 경우에는 [유형 4]에 속한다), 방이 춥다는 것을 말하는 반어적 ‘확인’일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유형 5]에 속한다). 이 발화의 다양한 발화의도에 대해서는 Searle(1979: 81) 참고.

우 언어표현을 통해 발화의도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관계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간접화행, 대화함축, 전제, 은유법, 반어법 등에 대한 개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서로 다른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간접화행, 대화함축, 은유법, 반어법 등과 같은 것들은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언어현상이 아니라,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에 추론과정이 개입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방법이거나 이런 의사소통 방식들 가운데 특정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기서 논의되는 언어현상 가운데 간접화행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대화함축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며, 은유법이나 반어법이 간접화행이나 대화함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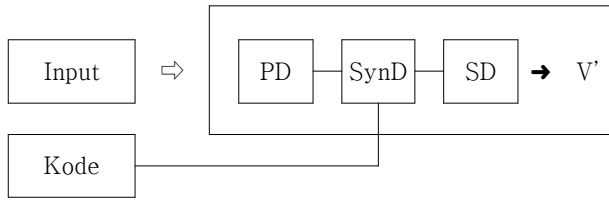
둘째, 각 유형이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을 거쳐 이해된다면, 먼저 각 발화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해 과정에서 이런 유형 파악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추론과정이 개입되는 이해 과정의 신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선행과정을 상정하는 것이 상정하지 않는 것보다 설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언어의 이해 과정에는 언어표현으로부터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지식을 이용하여 발화의도를 찾아내는 보편적인 이해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 먼저 Bühler u.a. (1983: 35ff.)가 제시한 의사소통모델에서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 모델에는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 화용론적 지식이 사용된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발화의 축어적 의미 해석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화의미나 발화의도의 이해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이 모델에서는 음운적 해석, 통사적 해석, 그리고 의미적 해석 과정이



PD: 음운해석, SynD: 통사해석, SD: 의미해석, V': 생각/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최근의 인지과학적 연구에서는 이런 해석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¹⁵⁾

따라서 의사소통 모델이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은(2003: 84)이 제시한 간접화행 이해의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간접화행의 해석 과정은 크게 축어적 의미의 이해과정, 관련성 검토과정, 그리고 실제적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으로 나뉘는데, 축어적 의미의 이해과정에는 음성학적 해독, 통사론적 해독, 의미론적 해독, 발화수반력 해독의 과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관련성 검토과정에서 축어적 의미 이해과정의 결과로 나온 해석이 문맥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해석이 바로 수용되어 발화를 이해하게 되지만, 문맥과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론기제가 작동해서 이해에 이르게 된다. 이 이론은 간접화행의 이해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의사소통 모델을 만들 때 참고할 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에서 음성학적 해독, 통사론적 해독, 의미론적 해독 과정은 3장에서 정의한 축어적 의미 이해의 과정에 상응한다. 그리고 문맥과의 관련성 검토가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발화수반력 해독은 언어표현에 들어있는 발화수반력

15) 여기에 대해서는 Schwarz(1996: 143)를 참고.